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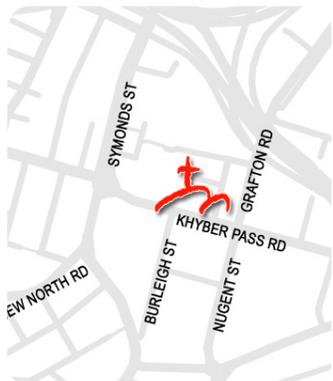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교회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집사, 권사 안수)이 다음 주일(19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임직자들을 축복하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오늘 2부 예배 후에 인도자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교재 7과를 공부합니다(3시 15분, 느헤미야 1).
3.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St David's 교회를 주관하는 위원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룩함으로 보호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4. 7월 마지막 수요일(30일)은 바누아투, 베트남 공동체 주관으로 드립니다. 두 공동체는 잘 협력하여 추운 겨울밤을 은혜의 열기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5.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6. 6월 28일 주일에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명단입니다. 정지안, 임채은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월 교회사역일지

7월 19일 (주일)
창립주일
임직식
7월 26일 (주일)
권사 기도회
7월 29일 (수)
바누아투, 베트남
공동체 주관 예배

7월 기도 순서

7월 19일 (주일)
손조훈 집사
7월 22일 (수)
장경희 집사
7월 26일 (주일)
정덕수 장로
7월 29일 (수)
공동체

7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창조, 김자경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28호

2020.07.12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일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95:1-3 -----	인도자
✧찬 송	----- 28장 -----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68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 창세기 9:8-17 -----	인도자
찬양대찬양	----- 주님앞에 무릎 꿇고 -----	나무삼자가찬양대
설 교	----- 내가내 언약을 세우리니 -----	이태한 목사
찬 송	----- 435장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310장 (1,4절) -----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	임태원 집사
성 경 봉 독	-----	사도행전 4:23-31
설 교	-----	처음 교인들의 기도
	-----	이태한 목사
찬 송	-----	361장
주 기 도	-----	다같이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임윤호 형제
다음 주 일
진대현 형제

이번 주는 대한민국과 북한 소식입니다.

1. 대한민국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응답자의 82%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에 따라 열에 아홉은 입법을 해서라도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차별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전체 300명 중 94명만 응답했는데, 법안 제정 찬성은 69명, 반대는 25명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를, 차별 금지 항목 중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성적 지향' 항목을 꼽았습니다. 또 응답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종교단체 등 외부로부터 차별 금지법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은 답변조차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https://iii.im/TEVC>]

6월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만 2,850명이 됐습니다. 이중 지역 사회 감염자는 36명으로 광주에 가장 많이 몰렸는데 비수도권에서 하루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약 석 달 만입니다.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광주 사찰 광복사는 물론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 감염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3개 가구에서 확진자가 이어져 방역당국은 주민 24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초등학교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엿새째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기사 보기 <https://iii.im/HKyS>]

2. 북한 소식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고영환 전 국가 안보전략 연구원 부원장이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 “평양 도심에 사는 조선노동당과 정부, 군 간부 가족에 대한 쌀 배급이 지난 2~3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고위직 가족에 대한 쌀 배급을 중단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국경이 폐쇄되면서 식품과 일용품의 공급량이 작년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하고 국경 폐쇄가 길어지면 북한이 체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 보기 <https://iii.im/rOtl>]

기도 제목

-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창립 21주년을 맞는 교회에 걸맞은 거룩함과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2. 생업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신뢰하도록.
3.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교만을 회개하도록.

2020년 7월 5일 주일에배 설교말씀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 2> 창세기 9:1-7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현실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복과(8:21) 다시 시작하는 복에(9:1) 이어 두 가지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1) 하나님은 육식의 복을 주셨습니다(9:3):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없었습니다(1:29-30). 육식을 하려면 산 동물을 죽여야만 하는데 죄가 없을 때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아 충분한 식량을 내지 못하게 되자 허락된 육식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락된 육식에는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9:4). 이 조건은 탐욕이나 쾌락을 위해 먹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마 6:31-33). 하나님은 반드시 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의 존엄함을 잃고 먹는 일로 인생의 중심 삼는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받는 복을 주셨습니다(9:6):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만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라 하셨습니다(9:6). 이것은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신 말씀처럼(롬 3:10) 우리 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엡 1:7). 홍수로도 없앨 수 없었던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없어진 것입니다. 죄짐과 고통을 주님께 내어 놓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기에(시 103:12)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아가 받은 복은 아담이 받은 복과 내용은 같으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신 것입니다(9:2). 아담의 시대에는 서로 두려워함 없는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죄로 인해 상실한 영적 권위로 동물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로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완전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로(창 3:15) 오실 때 완성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되는(사 11:6-8) 태초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완전한 복이기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완전한 복을 사모함으로 축복받는 온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 묵상: 시편 146편 - 잠언 23장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9: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